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관, 사회적 지지가 학과만족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이선영*, 이정숙**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상명대학교 간호학과**

The Convergent effect of Ego-resilien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ocial support on Department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Sun-young Lee*, Jeong-sook Lee**
Dept. of Nur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Dept. of Nursing Sangmyu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관, 사회적 지지가 학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2017년 4월부터 5월까지 간호대학생 272명으로부터 자료가 수집되었다. 연구도구는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관, 사회적 지지, 학과만족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학과만족의 차이는 학과선택 이유, 동아리 활동, 성적에서 유의미했다.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관, 사회적 지지, 학과만족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지지, 간호전문직관, 자아탄력성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간호전문직관,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활동을 통해 학과만족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관, 사회적 지지, 학과만족, 융복합

Abstract The study were to identify the effect of ego-resilience, nursing professionalism, social support on department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to May 2017 from 272 nursing students. The study tools were ego-resilience, nursing professionalism, social support, department satisfaction.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linear regression using SPSS/WIN 21.0 program. The result showed that the difference in department satisfaction relat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significant for reason for choosing a department, student activity, academic record. The correlation among ego-resilience, nursing professionalism, social support, department satisfaction were significant, and th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department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were social support, nursing professionalism, ego-resilience.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improve the department satisfaction through the activities that can enhance the social support,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go-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This will help them adjust to college life.

Key Words : Nursing Students, Ego-resilience, Nursing professionalism, Social support, Department satisfaction, Convergence

Received 30 October 2017, Revised 30 November 2017
Accepted 20 December 2017, Published 28 Decem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Jeong-sook Lee
(Dept. of Nursing Sangmyung University)
Email: luckyjs34@naver.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점점 경쟁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지면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진로를 선택할 때 자신의 관심이나 적성보다는 취업률이 높은 학과나 수능 성적에 맞추어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학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대학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며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게 된다[1,2]. 이는 개인은 물론 사회적 차원에서도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중고등학교 시기에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마련해주고 그에 맞추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학과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바르게 이해하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학과만족이란 학과에 대한 자신의 기대나 진로와 비교하여 학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자신의 미래의 진로나 기대와 일치한다면 학과만족은 높을 것이다. 이런 판단은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받으며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 학과만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3]. 학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대학생활적응은 떨어지고[4],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는 가중된다[1]. 자신의 동기에 의해 학과를 선택한 경우 학과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대학생들이 휴학이나 자퇴하지 않고 학교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5].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재학생 충원률이 대학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므로 학과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에 부딪혔을 때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2].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며 불안에 대한 민감성이 낮아져 대학생이 학과에 만족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6,7]. 간호학과 학생들은 국가고시에 대한 준비와 이론과 임상실습 교과목을 병행하여 이수해야 하므로 다른 학과와 달리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며 이것이 학과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아탄력성을 높여 이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전문직 종사자가 직업에 대해 갖게 되는 신념, 태도, 지각 등을 전문직관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간호를 보는 관점인 간호관과 결합된 것을 간호전문직관이라고 한다[8].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의 정립은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조화를 이루며 질적인 간호제공과 효율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환자뿐만 아니라 간호사 스스로에게도 만족감을 갖도록 하여 사회적으로 간호사의 위치를 확립하고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하므로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간호전문직관이 정립되지 못하여 확고한 이념과 목표가 없이 간호활동을 하게 될 때 특히 신규간호사의 경우 현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간호의 미래를 이끌어갈 간호학생이 학교에서부터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9]. 간호전문직관은 학과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므로 신입생 때부터 이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6].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10].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지지를 통해 심리적, 사회적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된다[2].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자원은 부모, 친구, 교수, 소속된 집단 등 다양한 곳에서 대인관계를 통해 형성될 수 있으며 새롭게 변화된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전공에 대해 만족하도록 지원해줄 수 있다[11]. 특히 교수나 친구의 지지는 대학생의 학과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2]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관, 사회적 지지는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나 국내에서 이에 대한 연구[6,12]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에 대해 단편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많으므로 이를 통합적으로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개인내적 요인인 자아탄력성과 환경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12,13]에 간호전문직관을 더하여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학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관, 사회적 지지, 학과만족 간의 관계를 확인하

고, 학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그들의 건강한 대학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관, 사회적 지지가 학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관, 사회적 지지, 학과만족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관, 사회적 지지, 학과만족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관, 사회적 지지, 학과만족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관, 사회적 지지가 학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관, 사회적 지지가 학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K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았으며, 2017년 4월부터 5월까지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20분 정도였으며 총 300부가 배포되었고 회수된 285부 중 답변이 불성실한 13부를 제외하고 272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표본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변수를 9개로 하였을 경우 최소 표본수가 166명으로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 272명은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자아탄력성

본 도구는 Klohnen[14]이 개발하고 Lee et al.[15]이 사용한 도구이다. 총 29문항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et al.[15]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2.3.2 간호전문직관

본 도구는 Yeun et al.[8]이 개발하고 Heo[16]가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이다. 총 18문항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Heo[16]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5였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2.3.3 사회적 지지

본 도구는 Nolten[17]의 학생 사회적 지지척도 (Student Social Support Scale)를 Choi[18]가 사용한 도구이다. 총 27문항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Choi[18]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2.3.4 학과만족

본 도구는 Illinois 대학에서 개발된 학과평가 조사지 (Program Evaluation Survey)를 토대로 Kim & Ha[3]가 수정, 보완한 27문항 5점 척도의 도구이다. 전공의 교과 내용 및 운영, 교수-학생 간의 관계와 의사소통, 전공관심, 학과의 사회적 인식, 학교의 사회적 인식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학교의 사회적 인식에 관한 7문항을 제외한 20문항을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과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 Ha[3]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2였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관, 사회적 지지, 학과만족의 정도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관, 사회적 지지, 학과만족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로 분석하였다.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관, 사회적 지지, 학과만족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실시하였고 대상자의 학과만족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은 남학생 33명(12.1%), 여학생 239명(87.9%)이었고, 학년은 1학년 64명(23.5%), 2학년 62명(22.8%), 3학년 69명(25.4%), 4학년 77명(28.3%)이었다. 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취업률 100명(36.8%), 적성 85명(31.3%),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 35명(12.9%), 학교 성적 33명(12.1%) 순이었다. 동아리 활동은 하고 있는 경우가 248명(91.2%)으로 대부분이었고, 성적은 중 185명(68.0%), 하 44명(16.2%), 상 43명(15.8%) 순이었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72)

Variable	Division	n(%)
Gender	Male	33(12.1)
	Female	239(87.9)
School year	1	64(23.5)
	2	62(22.8)
	3	69(25.4)
	4	77(28.3)
Reason for choosing a department	School grades	33(12.1)
	Aptitude	85(31.3)
	Employment rate	100(36.8)
	Parent or teacher's recommendation	35(12.9)
	Others	19(7.0)
Student activity	Activity	248(91.2)
	Inactivity	24(8.8)
Academic Record	High	43(15.8)
	Middle	185(68.0)
	Low	44(16.2)

3.2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관, 사회적지지, 학과만족에 대한 정도

자아탄력성의 평균은 3.46±0.48점이었고, 간호전문직관의 평균은 3.81±0.57점이었다.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3.88±0.57점이었고, 학과만족의 평균은 3.69±0.59점이었다 <Table 2>.

<Table 2> Degree of ego-resilience, nursing professionalism, social support, and department satisfaction (N=272)

Variable	M±SD	Range
Ego-resilience	3.46±0.48	2.17-4.83
Nursing professionalism	3.81±0.57	1.61-5.00
Social support	3.88±0.57	2.37-5.00
Department satisfaction	3.69±0.59	2.11-5.00

3.3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관, 사회적 지지, 학과만족의 차이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자아탄력성의 차이에서는 성적(F=8.020, p=0.000)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결과 성적이 낮은 경우보다 그 이상인 경우 자아탄력성은 높았다.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간호전문직관의 차이에서는 학년(F=5.051, p=0.002), 학과선택 이유(F=3.448, p=0.009), 성적(F=4.214, p=0.016)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결과 4학년보다 2학년이, 성적이 하인 경우보다 중인 경우 간호전문직관은 높았고, 학과선택 이유는 사후검증결과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사회적 지지의 차이에서는 학과선택 이유(F=2.785, p=0.027), 동아리 활동(t=2.063, p=0.050), 성적(F=6.421, p=0.002)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 사회적 지지가 높았고, 사후검증결과 성적이 낮은 경우보다 그 이상인 경우 사회적 지지가 높았으며 학과선택 이유는 사후검증결과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학과만족의 차이에서는 학과선택 이유(F=3.477, p=0.009), 동아리 활동(t=2.280, p=0.023), 성적(F=5.939, p=0.003)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 학과만족이 높았고, 사후검증결과 성적이 낮은 경우보다 그 이상인 경우 학과만족이 높았으며 학과선택 이유는 사후검증결과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Table 3>.

3.4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관, 사회적지지, 학과만족 간의 상관관계

자아탄력성은 간호전문직관(r=.293, p=0.000), 사회적

<Table 3> Differences of ego-resilience, nursing professionalism, social support, and department satisfac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72)

Variable	Division	Ego resilience	Nursing professionalism	Social support	Department satisfaction
		M±SD	M±SD	M±SD	M±SD
Gender	Male	3.57±0.41	3.83±0.61	3.86±0.60	3.63±0.55
	Female	3.44±0.49	3.80±0.57	3.89±0.57	3.70±0.59
t(p)		1.433(.153)	0.261(.794)	-0.286(.775)	-0.651(.516)
School year	1 ^a	3.50±0.45	3.74±0.59	3.81±0.60	3.58±0.50
	2 ^b	3.47±0.46	4.00±0.51	4.04±0.57	3.80±0.70
	3 ^c	3.41±0.54	3.86±0.59	3.87±0.64	3.73±0.63
	4 ^d	3.46±0.47	3.65±0.54	3.82±0.45	3.67±0.49
F(p)		0.471(.703)	5.051(.002)* (b>d)	2.237(.084)	1.677(.172)
Reason for choosing a department	School grades	3.52±0.46	3.88±0.55	4.09±0.49	3.74±0.66
	Aptitude	3.55±0.49	3.97±0.60	3.95±0.55	3.87±0.57
	Employment rate	3.40±0.50	3.72±0.51	3.79±0.55	3.61±0.56
	Parent or teacher's recommendation	3.39±0.42	3.63±0.62	3.90±0.59	3.59±0.58
	Others	3.38±0.42	3.76±0.54	3.66±0.77	3.48±0.52
F(p)		1.520(.197)	3.448(.009)*	2.785(.027)*	3.477(.009)*
Student activity	Activity	3.47±0.48	3.82±0.58	3.91±0.54	3.72±0.58
	Inactivity	3.35±0.44	3.68±0.51	3.58±0.78	3.44±0.60
t(p)		1.101(.272)	1.123(.263)	2.063(.050)*	2.280(.023)*
Academic Record	High ^a	3.61±0.40	3.73±0.61	3.94±0.63	3.76±0.57
	Middle ^b	3.48±0.49	3.87±0.55	3.93±0.55	3.74±0.59
	Low ^c	3.22±0.43	3.61±0.57	3.60±0.52	3.42±0.53
F(p)		8.020(.000)** (a,b>c)	4.214(.016)* (b>c)	6.421(.002)* (a,b>c)	5.939(.003)* (a,b>c)

* p<.05, ** p<.001

지지(r=.378, p=.000), 학과만족(r=.385, p=.000)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전문직관은 사회적 지지(r=.455, p=.000), 학과만족(r=.529, p=.000)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사회적 지지는 학과만족(r=.614, p=.000)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ego-resilience, nursing professionalism, social support, and department satisfaction (N=272)

Variable	Ego-resilience r(p)	Nursing professionalism r(p)	Social support r(p)
Ego-resilience	1		
Nursing professionalism	.293 (.000)**	1	
Social support	.378 (.000)**	.455 (.000)**	1
Department satisfaction	.385 (.000)**	.529 (.000)**	.614 (.000)**

** p<.001

3.5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관, 사회적 지지가 학과만족에 미치는 영향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과선택 이유(적성 1, 기타 0), 동아리 활동(유 1, 기타 0), 성적(기타 1, 하 0)을 더미변수로 전환하고,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관,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식은 유의미하였고(F=41.011, p<.001) 설명력은 47.0%였으며 사회적 지지(β=0.422, p<.001), 간호전문직관(β=0.277, p<.001), 자아탄력성(β=0.124, p=.012) 순으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5>.

잔차의 독립성 검정을 위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1.842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차한계는 0.699-0.940, 분산팽창인자는 1.064-1.431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Effect of ego-resilien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ocial support on department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N=272)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0.284	0.245		1.159	.248
Reason for choosing a department	0.110	0.058	0.087	1.899	.059
Student activity	0.049	0.094	0.024	0.525	.600
Academic Record	0.059	0.073	0.037	0.811	.418
Ego-resilience	0.151	0.060	0.124	2.530	.012*
Nursing professionalism	0.284	0.052	0.277	5.445	.000**
Social support	0.432	0.054	0.422	7.969	.000**
Adjusted R ² =0.470, F=41.011, p=0.000**					

* p<.05, **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관, 사회적 지지, 학과만족의 정도를 확인하고, 학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자아탄력성의 평균은 3.46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6,15]의 3.38점, 3.12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미술치료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9]와 비슷하고, 미용관련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 보다는 낮은 결과를 보였는데, 학과 간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자아탄력성이 개인의 내적 특성에[12]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차이에서는 성적이 낮은 집단보다 그 이상인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아 선행연구[12,15]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게 하는 개인적 성향으로[20],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다[21]. 자아탄력성은 낙관성을 증가시켜 긍정적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으므로 [7,22] 성적이 낮은 경우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낙담하지 않도록 교수나 선배와의 상담을 통해 용기를 주고 다시 능동적이며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할 것이다.

간호전문직관의 평균은 3.81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Heo[16]의 3.81점과

비슷하고, Kwon & Yeun[9]의 3.60점보다는 높았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대학생이 간호사라는 전문직의 개념을 정립하고 발전하도록 하는 의식적 견해이므로 이를 긍정적으로 확립하는 것은 중요하며[23],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 정도는 높아진다[4].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간호전문직관의 차이에서는 4학년보다 2학년이 간호전문직관이 높았고 다른 집단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선행연구[4,24]에서는 2, 3학년 학생이 4학년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거나 1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간호전문직관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 연구들 간에 결과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개인적 특성, 학교의 교과과정, 환경적 상황 등 다른 어떤 요인들과 관련되는지 반복적 연구를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성적이 하인 경우보다 중인 경우 간호전문직관이 높았는데 이는 성적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25]와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였다. 성적이 높은 집단의 경우 학과의 교과목에 더 집중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이 학문에 대한 전문적 개념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어 간호전문직관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3.88점이었고,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8]의 3.78점보다 약간 높았고, 보건복지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6]의 3.59점, 미술치료를 전공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9]의 3.71점 보다 높아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사회적 지지 수준은 높은 편이었다.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사회적 지지의 차이에서는 학과선택 이유,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 성적이 낮은 경우보다 그 이상인 경우 사회적 지지가 높았다. 사후검증결과 학과선택 이유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나 학교성적이 선택의 동기가 된 경우 사회적 지지가 가장 높았다. 성적이 낮은 경우보다 그 이상인 경우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은 성적이 중상위권인 경우 사회적 지지가 높았던 선행연구[13]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Kweon et al.[11]은 전공학습 동아리 활동이 사회적 지지의 향상은 물론 전공에 대한 만족을 높일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전반적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며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수준을 높여주므로[27] 간호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를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고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학과만족의 평균은 3.69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8,29]의 3.97점, 3.76점 보다는 낮았고, 아동영어교육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0]의 3.32점, 작업치료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1]의 3.32점보다는 높아 다른 전공의 학생들보다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학과만족의 차이에서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 성적이 낮은 경우보다 그 이상인 경우 학과만족이 높았다. 이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4]와 학과성적이 높거나 보통이라고 인정한 군이 낮다고 인정한 군보다 학과만족도가 높았다는 선행연구[12]를 지지하는 결과였다. 관련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동기부여가 강해 학업에 대한 성취가 높고 학과에 대한 만족도 높아지므로[32] 학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학과행사, 동아리 활동, 취업에 대한 전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동기와 상관없이 수동적으로 학과를 선택한 경우 학과만족이 더 낮아질 수 있으므로 교수나 선배를 통한 상담과 멘토를 통해 학생의 고민이나 어려움을 조기에 파악하여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사후검증결과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적성을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한 집단이 간호전문직관과 학과만족의 점수가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간호전문직관은 사고와 신념, 전문적 이미지, 전문적 자아개념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8] 적성을 고려하여 간호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간호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 간호에 대한 이해, 간호이미지, 신념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간호전문직관의 정도가 높을 수 있다. 또한 적성이나 흥미가 높으면 내재적 동기가 부여되고 자발적 의지에 의해 학과를 선택하게 되므로 학과만족이 높다[6].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관, 사회적 지지, 학과만족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자아탄력성과 교수나 친구의 지지가 높을수록 학과만족이 높아지고[2],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은 상관관계를 가지며[6,9],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으면 자아탄력성이 증가하고 이것이 학과만족도를 높인다[12]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였다. 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 간호전문직관, 자아탄력성 순으로 학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간호전문직관과 자아탄력성이 학과만족에 영향을 주고[6], 간호대학생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학과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한 선행연구[12]를 뒷받침하는 결과였다. 사회적 지지는 전공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사회적 지지가 적을 경우 학업성취에 대한 의지나 전공에 대한 흥미가 저하되어 학과만족이 낮아질 수 있는데 이는 주변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지속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다[11].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확립하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비전이 형성될 수 있도록 1학년 때부터 지도하여 이것이 학과만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아탄력성은 중재를 통해 변화가 가능하고[12], 대학생활에 적응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전공학습, 임상실습, 국가고시 등 간호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을[20] 확인하고 이것이 증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간호대학생들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학과에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간호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 간호전문직관, 자아탄력성은 학과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수나 학교 친구, 선배들이 지지해줄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긍정적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체계적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과에서는 간호전문직관이 바르게 확립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은 물론 그 이외의 활동에서도 학과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학과만족이 향상되고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관, 사회적 지지가 학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들의 건강한 대학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학과만족은 학과선택 이유, 동아리 활동, 성적에서 유의미했으며,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관, 사회적 지지, 학과만족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사회적 지지, 간호전문직관, 자아탄력성으로 확인되었으

므로 이것이 증진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과만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확대하여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개인적 특성, 학교의 교과과정, 환경적 상황 등 학과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적용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반복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과 이를 통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개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축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과만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후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REFERENCES

- [1] E. Y. Yu, Y. J. Yang, "A Study on the Difference among College Students' Department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nd the Influence on Career Stres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 12, pp.557-568, 2013.
- [2] S. H. Lee, G. Y. Jeong, Y. W. Jang. "A Study of Relations among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Satisfaction of Department among College Students from Cosmetology-Related Departments", *The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Vol. 30, No. 3, pp.21-47, 2016.
- [3] K. H. Kim,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 No. 1, pp.7-20, 2000.
- [4] H. J. Choi,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6, pp.68-77, 2017.
- [5] K. M. Soria, M. Stebleton, "Major Decisions: Motivations for Selecting a Major, Satisfaction, and Belonging", *NACADA Journal*, Vol. 33, No. 2, pp.29-43. 2013.
- [6] J. A. Cho, J. S. Kim, "Factors Affecting Nurs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Depart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4, pp.587-595, 2016.
- [7] S. Y. Yun, S. H. Min,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piritual well-being on College adjustment in major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2, pp.395-403, 2014.
- [8] E. J. Yeun, Y. M. Kwon, O. 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5, No. 6, pp.1091-1100, 2005.
- [9] Y. M. Kwon, E. J. Yeun,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Vol. 13, No. 3, pp.285-292, 2007.
- [10] H. S. Kim, D. K. Sherman, S. E. Taylor, "Culture and Social Support", *American Psychologist*, Vol. 63, No. 6, pp.518-526, 2008.
- [11] H. J. Kweon, Y. H. Nam, E. Y. Cheon, "A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ccording to Social Support Types of Students in the Dept. of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Vol. 13, No. 2, pp.17-27, 2012.
- [12] M. Y. Han, Y. S. Kim, M. K. Jeon, I. J. Kim,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atisfaction in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Crisisonomy*, Vol. 12, No. 6, pp.53-65, 2016.
- [13] Y. G. Noh, Y. S. Lee,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Test Anxiety among Nursing Students Taking the National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6, No. 11, pp.633-643, 2016.
- [14] E. C. Klohn,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5, pp.1067-1079, 1996.
- [15] S. Y. Lee, J. S. Lee, Y. Y. Kim,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n Ego-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 Convergence, Vol. 15, No. 5, pp.401-409, 2017.
- [16] Y. M. Heo, "An Impact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s on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in Nursing College Students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h.D. dissertation, pp. 28-43, Daegu Haany University, 2017.
- [17] P. W. Nolten,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Ph.D. dissertation, pp.1-2, Wisconsin-Madison University, 1995.
- [18] J. Y. Choi, "Study on Factors Affecting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Ph.D. dissertation, pp. 26-36, Eulji University, 2016.
- [19] Y. D. Kim, G. S. Kim, "Relationships between Life Stress and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in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Art Therapy: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Vol. 24, No. 1, pp.25-42, 2017.
- [20] H. Y. Jung, "The Convergence Influence of Life Stress, Depression and Ego Resiliency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7, pp.259-268, 2016.
- [21] M. S. Park, C. U. Oh, H. K. Kang, "Relationships among Bullying, Ego-Resilience, Perceived Stress, and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2, pp.73-81, 2017.
- [22] S. O. Utsey, J. N. Hook, N. Fischer, B. Belvet, "Cultural orientation, ego resilience, and optimism as predictors of subjective well-being in African American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Vol. 3, No. 3, pp.202-210, 2008.
- [23] H. J. Park, J. W. Oh, "The Relationships of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Majo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2, pp.417-426, 2014.
- [24] K. O. Lee, H. J. Chae, "Th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llege adjustmen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0, pp.355-365, 2016.
- [25] H. N. Lee, J. H. Kim, "The influencing factors of Ego-Resilience and Empowerment on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8, pp.292-300, 2016.
- [26] J. Y. Park, S. M. Park, "Influence of College Adjustment and Social Support on Career Development Level of College Students Who Majors in Health or Social Welfare", Korean Journal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Vol. 49, No. 2, pp.180-186, 2017.
- [27] N. Yıldırım, A. Karaca, S. Cangur, F. Acikgoz, D. Akkus,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stress, stress coping,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health status among nursing students in Turkey: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Nurse education today, Vol. 48, pp.33-39, 2016.
- [28] H. W. Kwak, S. W. Hwang, "A comparative stud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f students majoring in nursing: focus on a four-year technical college and univers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2, pp.239-249, 2017.
- [29] Y. S. Kim, E. J. Oh,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7 pp.103-111, 2016.
- [30] Y. J. Kim, Y. Y. Kim, S. M.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Satisfaction with Major, Career Identity and University life adjustment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Children's English Educ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9, pp.39-47, 2015.
- [31] K. A. Chung, J. H. Cho, "Differences between Major Satisfaction, University Life Adjustment, Self-Esteem and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the Time of Department Selection of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at One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143-155, 2015.

- [32] M. Komarraju, J. Swanson, D. Nadler, “Increased Career Self-Efficacy Predicts College Students’ Motivation, and Course and Major Satisfac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 22. No. 3, pp.420-432, 2014.

이 선 영(Lee, Sun Young)



- 1984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4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1976년 4월 ~ 현재 :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노인, 정신
- E-Mail : sylee601@kongju.ac.kr

이 정 숙(Lee, Jeong Sook)



- 2010년 2월 :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3년 8월 :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상명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정신건강, 중독
- E-Mail : jslee34@smu.ac.kr